

[1~2]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문을 열고 들어오며) ㉠ 보건 선생님, 제게 감기약 좀 주세요.
 선생님: 어? ㉡ 너 며칠 전에도 감기약 먹었잖아.
 학생: 네, 이상하게 감기가 낫지 않네요.
 선생님: 약만 계속 먹는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해보자. 증상이 어떤지 자세히 말해 보렴.
 학생: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아서 약을 그만 먹으면, 또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그래요.
 선생님: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 평소에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그러니?
 학생: 네, 자꾸 졸음이 오고 몸에 힘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잠이 쏟아져요.
 선생님: 운동이나 야외 활동은 자주 하니?
 학생: 별로요. 제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선생님: 음……. 선생님 생각에는 네가 평소에 햇볕을 쬐지 않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구나. ㉣ 과학 시간에 배웠지?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거.
 학생: 맞아요. 기억나요. ㉤ 그런데 비타민 C도 아니고 비타민 D가 피곤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거든. 시간이 없더라도 점심시간에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아. 그러면 감기도 빨리 나올 거야.
 학생: 그렇군요. 밖에 나가는 건 싫으니깐, 앞으로는 창문 앞이라도 서 있어야겠네요.
 선생님: ㉥ 아니야. 유리창을 통해 햇볕을 쬐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 야외에서 직접 햇볕을 쬐는 게 건강에 좋단다.
 학생: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햇볕과 친해지러 나가야겠어요. 고맙습니다.

㉠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좋겠어.	①
	윗사람과의 대화이므로 '제게'라고 표현하고 있군.	②
㉢	상대방의 말을 바로 실천으로 옮긴다고 하여 상대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고 있군.	③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맙습니다.'보다는 '수고하세요.'가 좋겠어.	④
	존댓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공손함을 표현하고 있군.	⑤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과거의 기억이 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 질문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다.
 ③ ㉢: 학생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④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 점을 질문하고 있다.
 ⑤ ㉤: 학생과 타협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중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것은? [3점]

황희 정승이 조정에서 돌아오자 그 딸과 며느리가 상기된 얼굴로 달려왔다.
 딸: 아버지, 이가 어디에서 생기나요? 옷에서 생기지요?
 황희: ㉠ 사람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 말이로구나. 그럼 옷에서 생기지.
 딸: 내가 이겼다!
 며느리: 아버님,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황희: ㉡ 둘이 내기를 했나 보구나. 어서 말해 보렴.
 며느리: 먹을 것이 있어야 하니까, 살에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황희: ㉢ 먹을 것이 있어야겠지, 그렇구나.
 며느리: 거 보세요. 아버님께서 제 말이 옳다고 하시네요!
 부인: 누가 대감더러 지혜롭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옳고 그름을 다투는데 양쪽 모두 옳다니요?
 황희: ㉣ 여보, 그러고 보니 당신 말도 옳구려.
 부인: 네?
 황희: ㉤ 무릇 이는 살도 옷도 모두 떠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이는 살과 옷의 중간에서 생긴다고 해야겠소.

— <보 기> —
 듣기를 잘 수행하려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영: 다음 달에 교내 창의융합 발표대회가 개최된대.
 지혜: (놀란 표정으로) 창의융합 발표대회? 우리 방송반은 점심시간 음악 방송하기도 바쁜데, 그런 걸 언제 준비할 수 있겠냐?
 가영: 음악 방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송을 계획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철수: ㉠ 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만드니?
 지혜: 가영아, 넌 뭘 하고 싶은데? ㉡ 들어나 보자.
 가영: 얼마 전 신문에서 보았는데, 영상보다는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를 통해 학습을 하면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는 기사였어.
 철수: 뭐야, 당연한 거잖아! (고개와 몸을 돌리며) ㉢ 그건 신문의 수작이야.
 지혜: 철수야 잠시만, 가영이 너는 정말 그런지 실험해 보고 확인해 보자는 거니?
 가영: 맞아. 같은 내용을 영상물과 인쇄물로 만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대회 준비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일종의 창작 공연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알려 줄 수도 있어. ㉣ 일종의 페스티벌 형식이지.
 철수: 야, 그런 건 준비도 많이 해야 하는데 언제 하나? 대회 발표 보고서는 누가 쓰냐. 난 싫어. ㉤ 넌 뭘 욕심이 그리 많냐!
 지혜: 사실 우리는 학생이니까 공부도 해야 하고, 매일 하는 음악 방송도 준비해야 하고, 벅찬 것 같아.
 가영: 주말을 이용하...
 [A] 철수: (말을 가로채며) 그럴 수도 있지만, 난 빼줘. 할 일 많아.
 가영: (머뭇거리며) 한번 해보자.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4. ㉠~㉤을 상대방을 배려한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 ② ㉡: 어디 한번 자세한 내용을 말해 봐.
- ③ ㉢: 구독자를 늘리려는 신문사 의도가 담긴 기사야.
- ④ ㉣: 일종의 축제 형식이
- ⑤ ㉤: 너처럼 욕심을 부리면 될 일도 안될 거야.

5. [A]의 '철수'에게 조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다.
- ②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반응을 해야 한다.
- ③ 상대방에 대한 비하를 줄이고 칭찬을 늘려야 한다.
- ④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⑤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면 상대방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6~10] 다음은 정음이 선생님께서 부탁을 드리기 위한 글을 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6. 다음의 글쓰기 계획에 반영된 문제 해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께서 우리 자율 동아리 '한글꿈'을 꼭 맡아 주셔야 할 텐데. 요즘 선생님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직접 찾아뵙고 말씀 드리기보다는 간곡한 부탁을 담은 편지를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을 적고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평소 국어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점을 적어야겠지. 문학적 표현 방법도 쓰고, 국어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겠어. 그리고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다듬어야지.

- ① 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처를 밝혀 적도록 한다.
- ② 글의 주제에 맞게 글의 대략적인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언어 예절에 맞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다.
- ④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합한 글의 형식을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⑤ 글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글의 표현 방법을 고려하도록 한다.

7. <보기>는 정음이의 활동 모음집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정음이의 자료 해석 및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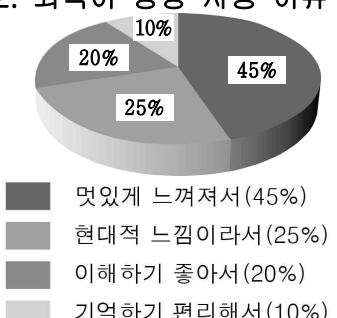
<보 기>

(가) 교내 동아리 통계 및 설문 결과

1. 동아리 명칭 비율(%)

	2010년	2015년
외국어	36	56
한자어	28	23
고유어	23	8
기타	13	13

2. 외국어 명칭 사용 이유



- 멋있게 느껴져서(45%)
- 현대적 느낌이라서(25%)
- 이해하기 좋아서(20%)
- 기억하기 편리해서(10%)

(나) 수행평가 독서감상문 중에서

영국령 맨 섬에 살던 ‘네드 매드럴’과 캘리포니아 주에 살던 ‘로신다 놀라스케스’는 각각 ‘맹크스어’와 ‘쿠페노어’를 사용한 유일한 생존자였다. 1974년과 1987년, 두 사람의 죽음으로 언어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처럼 우리말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을 읽고

(다) 학교신문 여름호 투고문 중에서

요즘 문법이 파괴된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으로 국어가 위기에 처해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학교 동아리들의 이름과 ‘잉글리시 존’, ‘커리어 존’, ‘이 클래스’ 등 외국어 이름을 가진 시설을 보면 그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 밖에는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학교 앞 큰 길의 ‘게눈감추듯(분식점)’, ‘빨테와 금테(안경점)’, ‘가위 소리(미용실)’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가게 이름을 고유어로 바꾸었을 때 업종과 의미가 바로 연결이 되어 가게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유어 상호가 외국어 상호보다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들은 무턱대고 외국어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 ① (가)-1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의 동아리 명칭으로 고유어보다 외국어의 비율이 늘어났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
- ② (가)-2를 활용하여, 동아리 명칭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밝힐 수 있겠어.
- ③ (다)를 활용하여,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알릴 수 있겠어.
- ④ (가)-1과 (나)를 활용하여, ‘맹크스어’의 사례를 통해 고유어로 표현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어.
- ⑤ (가)-2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국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겠어.

8. (나)는 (가)를 수정·보완한 개요이다. (나)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I. 처음

- 인사
- 글을 쓴 이유

II. 중간

1. 언어생활의 실태
 - 가. 동아리 명칭
 - 나. 교실 명칭
2.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
 - 가. 활동 계획
 - 나. 설립 취지
 - 다. 활동의 의의
 - 라. 선생님의 역할

III. 끝

- 끝인사

(나)

I. 처음

- 인사
- 글을 쓴 이유

II. 중간

1. 언어생활의 실태
 - 가. 동아리 명칭
 - 나. 교실 명칭
2.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
 - 가. 설립 취지
 - 나. 활동 계획
 - 다. 활동의 의의
 - 개인적 차원
 - 사회적 차원

III. 끝

- 글을 쓴 이유
- 끝인사

⇒

- ①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개요 항목을 재배치해야겠다.
- ② 동아리에 대한 소개를 추가하여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 ③ 상위 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 ④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글을 쓴 이유를 반복하여 명확히 드러내야겠다.
- ⑤ 동아리 활동이 어떤 이로움이 있을지 기준을 세워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겠다.

9. <조건>에 맞게 편지글의 인사말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한글에 대한 관심을 담은 계절 인사일 것
- 대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

- ①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흐뭇하게 추수를 맞이하려는 9월의 아름다운 날입니다.
- ② 국어에 대한 사랑만큼 빛나는 태양이 하루하루를 밝게 비추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③ 추수를 마친 농부의 마음은 여유로운데 우리말 사랑 실천에 제 마음은 더욱 바빠지는 가을입니다.
- ④ 세종대왕께서 사시던 시대와 멀어질수록 한글에 대한 저의 사랑은 세종대왕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입니다.
- ⑤ 학교 담장 아래로 떨어지는 낙엽과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는 새들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게 합니다.

10. 다음은 정음이가 쓴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어를 사랑하는 정음입니다. 제가 새롭게 만드는 동아리의 지도 교사를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과 비슷한 이름 때문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행평가로 읽은 『사라져가는 목소리들』과 모둠학습에서 수행한 우리 학교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국어에 대해 다시 ㉠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동아리 명칭 조사 결과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Play Job’, ‘it Dream’ 같은 ㉡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는 동아리가 부쩍 늘었고, 학교에 새로 생긴 시설 명칭도 다섯 개 중 세 곳이 외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별다른 문제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언어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아 ‘한글킴’이라는 자율 동아리를 조직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우리 학교의 언어 사용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며,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알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 활동은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싶은 제 개인적인 진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주시경 선생님의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선생님께서 한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수업 시간에 종종 말씀해 ㉥ 주셨기 때문에, 저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 교사라는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기다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5년 9월
정음 올림

- ① ㉠: 문장의 주술 호응을 고려하여 ‘생각하였습니다’로 고친다.
- ② ㉡: 문맥을 고려하였을 때 정확한 어휘를 제시해야 하므로 ‘외국어’로 바꾼다.
- ③ ㉢: 글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을 넣는다.
- ④ ㉤: 앞 문단의 내용과 연결되므로 앞 문단의 맨 뒤로 옮긴다.
- ⑤ ㉥: 높임 표현에 맞게 ‘주셨기 때문에’로 고친다.

11. 다음의 단모음 체계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을 벌리는 정도)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폐모음)	ㅣ	꺄	ㅡ	ㅜ
중모음(반개모음)	꺄	꺄	꺄	꺄
저모음(개모음)	ㅘ		ㅚ	

— <보 기> —

수정: ㉠가 잘 했어야 했는데.
 민기: 뭐? 내가 잘 했어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수정: 아니. 니가 못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민기: 아아,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가 잘 했어야 했는데.’로 들었어. 그런데 ‘니가’는 잘못된 표현 아니야?
 수정: 맞아. 그런데 ‘내’와 ‘네’가 혼동되니까 현실적으로 ‘니가’를 사용하기도 하지.
 민기: 아, 그렇구나. ‘내’를 발음할 때는 (㉠)

- ① ‘네’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겠구나.
- ② ‘네’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겠구나.
- ③ ‘네’보다 혀의 높이를 더 높아지게 해야겠구나.
- ④ ‘네’와 달리 혀의 최고점을 앞에 놓아야겠구나.
- ⑤ ‘네’와 달리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겠구나.

12. 다음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받침이 뒤의 첫소리로 옮겨가며 나는 소리를 잘못 발음해서
- ②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를 혼동하여 구분하지 않고 발음해서
- ③ 과도한 된소리나 거센소리를 뒤의 첫소리로 연이어 발음해서
- ④ 긴소리를 짧은소리와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고 짧게 발음해서
- ⑤ 이중모음의 발음을 단모음의 발음과 구분하지 않고 발음해서

13.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 선생님, 한글맞춤법 제1항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예요?

선생님: 맞아, 그러면 표기할 때 편하지. 그런데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어 있어.

학생: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어근의 형태를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말이야.

— <보 기> —

가-1. 지리산은 전라, 충청, 경상도 어름에 있다.

가-2. 썰매를 타고 얼음을 지쳤다.

나-1. 자세를 반듯이 해라.

나-2. 오늘 반드시 다 마치도록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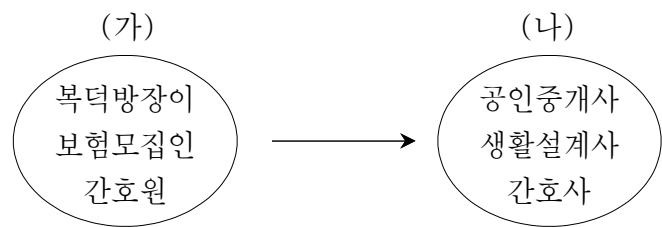
- ① 가-1은 소리대로 적어 표기하기에 편리하다.
- ② 가-2는 의미 파악이 쉽도록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 ③ 가-1, 가-2는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다.
- ④ 나-1처럼 형태소의 본 모양을 적으면 뜻이 쉽게 파악된다.
- ⑤ 나-2는 어근의 본뜻이 파악되도록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 ② (나)의 의미는 목적어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 ③ (다)의 어휘들끼리는 문장에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 ④ (다)는 문장에서 (가)로 바꿔 쓸 수 있다.
- ⑤ (다)는 (가)에 비해 세분화된 의미를 지닌다.

15. (가)에서 (나)로 명칭이 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를 간결하게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② 특정 집단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 ⑤ 새로운 표현을 좋아하는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세기 영국의 공리주의자인 벤담이 처음 제안한 원형 감옥인 패놉티콘은 한 명의 간수가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 패놉티콘은 간수가 있는 중앙의 공간을 항상 어렵게 유지하여 죄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간수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었다. 반면 바깥쪽의 둥그런 감옥에는 건물 내부를 향한 창이 있어서 자신들의 모습이 간수에게 시시각각 포착되어 죄수들은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벤담은 이런 패놉티콘의 구조는 죄수들에게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A] 1970년대 중반 이른바 정보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 감시’가 패놉티콘을 통한 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 급속히 퍼지면서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벤담의 패놉티콘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CCTV는 도로와 거리, 건물 내·외에 자리 잡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 또한 신용 카드와 같은 전자 결제를 통해 나의 소비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심지어는 전화 통화, 문자 내용까지도 저장되어 필요할 때 다시 복원할 수 있다. 바야흐로 정보 수집을 통한 다양한 감시와 통제, 즉 ‘전자 패놉티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정보’는 벤담의 패놉티콘에서의 ‘시선’을 대신해서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용한다.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의 공통점이 있다. 죄수가 늘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간수 때문에 매사의 행동에 조심하는 것처럼, 정보가 수집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열람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둘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패놉티콘에 죄수는 볼 수 없고 간수만 볼 수 있게 만든 시선의 비대칭성이 있다면 전자 패놉티콘에는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방대하게 수집된 정보를 열람할 때 접근자의 신분에서 다른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보 혁명의 시대를 거쳐 정보의 바다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자 패놉티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 전자 패놉티콘의 두 가지 부정적인 속성을 해결하면 의외로 답은 간단할 수 있다. 우리를 막연한 불안감, 불확실성에 떨게 하는 무차별적인 정보의 과다 수집을 금하고, 이미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역감시의 결과도 낳을 수 있고 이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2.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 패놉티콘 사회의 특징은?
- ② 패놉티콘의 기원과 구조적 특징은?
- ③ 패놉티콘이 초기에 주목 받지 못한 원인은?
- ④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 ⑤ 전자 패놉티콘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23.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 ② 학교 폭력 신고함을 각 교실마다 설치하고 수시로 확인하자 학교 폭력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 ③ 백화점을 찾은 고객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비 형태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다.
- ④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는 장소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자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하지 않게 되었다.
- ⑤ 일 년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신고 재산을 언론이 공개하자 공직자의 비리가 많이 줄었다.

24.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구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서구에서는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였는데, 나이, 가족 수, 가구,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의 광범위한 조사였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법률과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었다.

— <조 건> —

- 목적: [A]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담을 것
- 표현: 문맥에 맞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한 글쓴이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좀 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겠어.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 이미 정보화 사회의 폐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는데 낙관적 전망만 해서는 안 되겠지.
- ③ 양날의 검처럼 쓰는 사람에 따라 이로울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거야. 사회현상에 대해 한쪽 면만 보고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 ④ 시간은 천금이라고 했어. 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희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어.
- 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해.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의 몸은 약 70%의 물로 구성되며, 물은 영양소와 산소를 몸 전체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소변, 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물이 절대적으로 한정된 달 기지나 우주정거장에서는 버려진 물을 여과하여 사용해야 한다. 물을 지구에서 우주로 실어 나르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는 폐수가 필터를 통해 아래로 이동하며 여과된다. 달 기지에서도 물이 아래로 흘러 필터를 통과하지만, 중력이 낮아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렇다면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정거장에서는 어떻게 폐수를 여과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중력처럼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직선운동을 한다.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일정한 크기의 외부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등속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여 원운동을 유지하는 힘이 구심력이다. 구심력과 반대 방향인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중심 밖으로 나가려는 가상의 힘으로,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등속직선운동하려는 관성에 의한 효과이다. 그리고 사람이 회전하는 물체 안에 있다면 원심력을 중력처럼 인식하게 된다.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이 원심력을 이용해 물을 여과할 수 있다.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의 외곽에 거주하는 우주인은 등속직선운동을 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은 우주인을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우주인은 원심력을 정거장의 바깥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중력처럼 인식하게 된다. 폐수에도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고, 이 힘을 이용해 지구에서처럼 폐수를 여과할 수 있다. 즉 수만 명이 살아갈 거대한 우주 거주 시설은 다량의 폐수를 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전 운동을 통해 원심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의 운동과 힘, 운동 방향 등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우주 공간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어떻게 만들고, 회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영화 속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날을 기대한다.

25.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 ㄴ.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ㄷ. 예상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ㄹ.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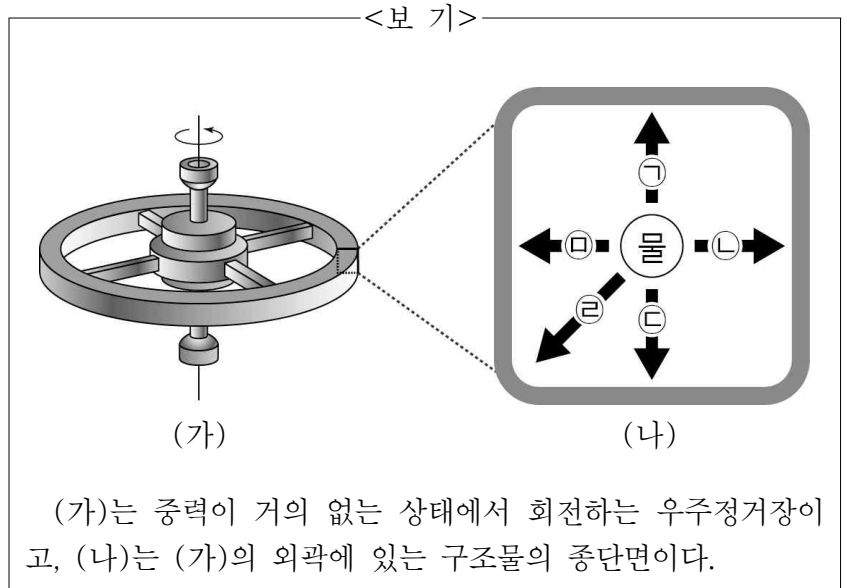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심력은 물체의 회전 운동을 발생시킨다.
- ② 중력의 크기는 물의 여과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려면 외부의 힘이 있어야 한다.
- ④ 회전하는 물체 안의 사람은 원심력을 중력처럼 인식한다.
- ⑤ 지구에서 물이 흐르는 이유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7.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의 '물'의 이동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레고리안 선법*은 그레고리오 성가들에 쓰인 선법을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대제가 체계화한 것이다. 이 선법은 남성이 부를 수 있는 한정된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음을 사용하지 않는 단선율의 음악이었으며 무반주 형태의 합창이나 독창으로 불렸다.

그레고리안 선법은 중요한 2개의 음인 ‘중지음’과 ‘중심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지음은 멜로디를 끝마치는 음이며 중심음은 멜로디 전체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음이다. 그레고리안 선법은 중지음이 각각 다른 4개의 ‘정격 선법’과 여기서 파생된 4개의 ‘변격 선법’으로 나뉜다.

정격 선법에는 그리스 각 지역의 이름을 딴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소리디아가 있다. 정격 선법의 음역은 각각의 중지음으로부터 한 옥타브 위까지이다. 리디아는 ‘바’가 중지음이므로, 그 음역은 중지음 ‘바’에서 한 옥타브 위의 ‘바’까지가 된다. 그리고 ㉠ 중지음을 기준으로 하여 5도 위의 음이 ㉡ 중심음으로 결정된다. 리디아는 중지음이 ‘바’이므로, ‘바’부터 시작하여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음인 ‘다’음이 중심음이 되는 것이다.



변격 선법은 중지음이 같은 정격 선법에서 파생된 것이다. 변격 선법 명칭은 짝이 되는 정격 선법 명칭에 하이포(Hypo)라는 접두어를 붙여 불렀다. 변격 선법은 중지음의 아래 4도에서 중지음 위 5도까지의 음역을 가지며, 중심음은 중지음의 3도 위의 음이다. 하이포-리디아는 중지음이 ‘바’이고 중심음이 ‘가’가 되는 것이다.



그레고리안 선법은 서양 음악의 이론적 체계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것은 교회 음악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크, 고전주의 음악에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의 많은 작품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전과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 현악 4중주 제15장 3악장의 주제부로 리디아 선법의 변격인 하이포-리디아를 사용하여 병에서 회복한 기쁨과 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종교적인 분위기로 표현했다.

*선법: 악곡 중에 사용되는 음을 옥타브 사이에 음높이 순으로 배열한 것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정격 선법과 변격 선법은 짝이 되어 화음을 이룬다.
- ② 단선율의 그레고리안 선법은 독창을 위한 반주이다.
- ③ 변격 선법의 중심음은 중지음보다 항상 높은 음이다.
- ④ 정격 선법보다 변격 선법의 음역에는 음의 개수가 더 많다.
- ⑤ 정격 선법은 각각의 중지음보다 낮은 음이 음역에 존재한다.

29. <보기>는 ㉠의 주제부 악보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중심음인 ‘가’음은 주제부의 첫 마디에서 사용되었다.
- ② 하이포-리디아 음역의 모든 음이 주제부에서 사용되고 있다.
- ③ 중지음 ‘바’는 주제부의 멜로디를 마칠 때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 ④ 하이포-리디아 음역의 가장 낮은 음으로부터 주제부가 시작된다.
- ⑤ 주제부의 음역은 낮은 ‘다’음에서 높은 ‘다’음까지 한 옥타브이다.

30.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π 는 3.141592...의 무한 소수이다.
- ② 지구의 대륙과 해양은 크게 5대양 6대주로 나뉜다.
- ③ 함수 $y=f(x)$ 는 x 의 값에 따라 y 의 값이 결정된다.
- ④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 하나가 나온다.
- 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여러 가지 색으로 분리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가)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게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확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짓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져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 집안 일이니 딸애젠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가 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관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오죽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구 생각만 해두 진저리나지……. 그러나 늘그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서 큰길로 띄어졌다. (나) 꿈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시절이러다. 충춧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쉼게 생각 말게.”

“처,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 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꺾꺾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예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똥하면 미끄러졌다. 허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 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얹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 물은 뼈를 찢었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구?”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 가서 술장수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래서 의부라고 전망나니예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들 편한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곤 하니 집 꼴이 무어겠소. 열여덟 살 때 집을 뛰어나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낫세론 섬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채었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맹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훔칠 듯하였다. (다) 나귀와 조 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절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구?”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밟디뎠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 버렸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31. (가)~(다)의 행렬을 아래와 같이 그림 기호로 나타내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		□
□	◇ □ ○	
○		◇ ○

- ① (가)의 행렬은 공간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행렬은 대화 참가자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다)의 행렬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④ (가)에 비해 (다)에서 □의 역할은 커진다.
- ⑤ (가)에서 (다)로 전개될수록 ◇와 ○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32.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곳’은?

<보 기>

떠돌이 장꾼인 허 생원은 ‘이곳’에서 수직적으로 이동하며 거듭 시련을 겪은 후 정착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한다.

- ① 산허리
- ② 산길
- ③ 큰길
- ④ 고개
- ⑤ 개울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자연 배경, 현재와 과거의 연결 구조, 한국적인 소재의 선택, 서정적 문체 등이 조화를 이루어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중심인물들의 관계가 밝혀지는 탐정식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 ① 허 생원의 옛 추억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군.
- ② 한국적 소재인 핏줄 찾기 이야기라서 독자가 쉽게 공감하겠군.
- ③ 허 생원의 과거 일이 작가의 글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져 독자에게 전달되겠군.
- ④ 허 생원과 동이의 대화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 ⑤ 허 생원은 동이 모가 성 서방네 처녀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탐정식 질문을 하고 있군.

[34~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것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나) ㉢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결(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길재 -

34. (가), (나)의 형식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4음보의 율격을 가진다.
- ② (나)는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3단 구성의 짜임을 취한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이야기 전달에 목적이 있다.
- ⑤ (가), (나)는 감탄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에 나타난 작가의 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준다. (가)는 승려인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이고, (나)는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모친 봉양을 핑계로 고향에 은거한 작가가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찾아 느끼는 감회를 읊고 있는 작품이다.

- ① ㉠: 어느 가을의 때 이른 바람이라는 인식을 통해 예기치 못한 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군.
- ② ㉡: 극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통해 슬픔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는군.
- ③ ㉢: 오백 년 도읍지라는 시간과 장소의 제시를 통해 단절된 고려 왕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군.
- ④ ㉣: 자연은 변함없는데 고려의 옛 충신들은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군.
- ⑤ ㉤: 태평한 세상이 꿈속에만 있겠느냐는 각성을 통해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군.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저킵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

(나)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치 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 비가 샌 지가 오래 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썩었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격 비가 샌지 오래 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

36. (가), (나)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사실적 세계를, (나)는 허구적 세계를 바탕으로 한다.
- ② (가)의 화자는 임의로 설정된 자아이며, (나)의 화자는 작가 자신이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함축적 언어로 정서를 드러낸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대상과 거리를 두어 객관적 태도를 유지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운율감 있는 언어로 주제를 형상화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 ‘머뭇거림’의 정서는 ‘행동’과 ‘행동의 멈춤’의 이미지 대립을 통해 드러나며,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소재, 시어뿐만 아니라 행의 배열 기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 ① ‘말을 할까’와 ‘그냥 갈까’에 사용된 어미를 통해 행동과 행동의 멈춤에 대한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 ② ‘다시’, ‘어서’의 부사는 화자가 떠남의 결단을 내린 것을 보여준다.
- ③ ‘까마귀’와 지는 ‘해’는 화자에게 떠나 가야하는 상황임을 환기시킨다.
- ④ 의도적 행갈이를 통해 낭송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화자의 머뭇거림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⑤ 1, 2연은 짧은 시행을, 3, 4연은 보다 긴 시행을 배열하여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낸다.

3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다.
- ② ㉡은 문제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 ③ ㉠은 ㉡과 달리 자아 성찰의 도구이다.
- ④ ㉡은 ㉠과 달리 흐르는 동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 ⑤ ㉠과 ㉡은 모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설(說)은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한문 문체이다. 설은 직관적 통찰과 깨달음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물의 유사점에 근거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과정일 수 있다.

사실	→	깨달음	→	적용
A		B		C

- ① A에는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② B는 A와 사람과의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하여 추론하고 있다.
- ③ B의 깨달음은 C에서 나라의 정치라는 영역으로 적용되고 있다.
- ④ A→B→C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 ⑤ C에서 화자는 부패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불러 건너갈 때 맵시 있는 방자 녀석, 서왕모가 요지연에 편지 전하던 파랑새같이 이리저리 건너가서,

“여봐라, 이 애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라,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래느냐.”

“이 애야, 말 마라. 일이 났다.”

“일이라니 무슨 일?”

“사또 자제 도련님이 광한루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명을 내렸다.”

춘향이 화를 내어,

“㉠ 내가 미친 자식이로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냐. 이 자식 내가 내 말을 종달새가 삼씨 까 먹듯 빨리 하였나 보다.”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네가 그르지 내가 그르냐. 너 그른 내력을 들어 보아라. 계집아이 행실에 그네를 타려면 네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매고 타는 게도리에 당연함이라. 광한루 멀지 않고 또한 지금은 녹음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좋은 봄이라. 향기로운 풀은 푸르고, 앞 시냇가 버들은 초록색 휘장을 들렀고, 뒤 시냇가 버들은 연두색 휘장을 둘러, 한 가지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평퍼져 흐늘흐늘 춤을 춘다. 이 같은 광한루 경치 구경하는데, 그네를 매고 네가 뛰어 외씨 같은 두 발길로 흰 구름 사이에서 노닐 적에 ㉡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흰 속옷 갈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같은 네 살결이 흰 구름 사이에 희뜩희뜩한다. 도련님이 이를 보시고 너를 부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잔말 말고 건너가자.”

[A]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뻐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내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방자 별 수 없이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인즉 옳도다. ㉢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방자 그 전갈을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사이에 제 집으로 돌아갔다.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 들어가니,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칭하노라. 여염 처자 불러 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미 썩 나 앉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 룡(龍) 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춘향이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한루로 건너갈 제, ㉣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 걸음으로, 양지(陽地) 마당의 씨암탉 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월(越)나라 서시(西施)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늘흐늘 건너온다. 도련님 난간에 절반만 비켜서서 그웁이 바라보니 춘향이 건너오는데 광한루 가까이 온지라. 도련님 좋아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여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淸江)에 노는 학이 설월(雪月)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쯤 열렸으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 연지를 폼은 듯, 자춧빛 치마 고운 태도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고,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은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 단정히 옮겨 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 있거늘, 통인 불러 말한다.

“앉으라고 일러라.”

춘향이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갖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재계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 가인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붉은 입술 반쯤 여니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40.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향의 모친은 꿈을 근거로 들어 춘향을 설득하고 있다.
- ② 도련님은 춘향의 대답을 통해 춘향의 인물됨을 평가하고 있다.
- ③ 춘향이 집에서 한 행동을 보니 방자가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다.
- ④ 춘향은 두 번째 전갈을 받고서 도련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 ⑤ 방자는 춘향이 한 행실을 들어 문제의 원인을 춘향에게 돌리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속어를 사용하여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 구체적 내용을 감추는 말을 사용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열거하여 인물의 행동을 미화하고 있다.
- ⑤ ㉤: 등장인물의 독백을 통해 상대에 대한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와 [A]를 비교했을 때, [A]에서 부각되는 '춘향'의 가치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방자 놈 말이,
 “추천인지 그넨지 은근한 곳에서 할 것이지, 광한루 가까운 요런 쪽 바라진 산등성 마루에 매고 뛰라더냐? 사또 자제 도련님이 산천경개 구경코자 광한루에 올랐다가, 수풀 사이에 추천하는 네 거동 살펴보고 성화같이 불러오라 분부 지엄하니,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춘향이 할 수 없어 삼단같이 흘은 머리 제색으로 집어 쫓고 난이며 봉을 새긴 비단 치마를 섬섬옥수로 잡아 걸쳐 맵시 있게 비껴 섰다. 방자 놈 따라 인적 드문 좁은 길로 행똥 똥 똥 바삐 걸어 계단 아래에 이르러 문안을 아뢰다.

- ① 주체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 ②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
- ③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 ④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해야 한다.
- ⑤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인고의 자세가 필요하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수시로 공룡의 침입을 받는 나라에서 시민 대표들이 모여 왕을 선출한다. 어느 날 박물관장이 큰 알을 들고 나타나 내일 알에서 공룡을 물리칠 왕이 깨어날 것이라고 전한다. 왕은 자결을 하고, 새롭게 왕이 된 박물관장은 알의 실체를 숨기고 시민들을 길들인다.

시민들: (또 다시 괴로워한다.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이 반복된다. 마침내 그들은 수십 차례 고문을 당한 사람들처럼 맥이 빠져 비굴할 정도로 유순해진다.)

박물관장: ㉠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것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어느 때든 이와 같은 주문을 외우겠다. 알겠느냐?

시민들: 네, 폐하.

박물관장: 아니야, 네 놈들이 길들어지려면 아직 멀었어. (다시 시작한다.)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셨었다!

시민들: (㉡ 기진맥진한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 신음 소릴 지른다.)

시민 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땅에 엎드리어 신왕에게 기어와 그의 발에 공손히 입을 맞추며) 우리들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폐하, 우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그 알 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진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은 기꺼이 폐하를 섬기겠습니다.

박물관장: 임금의 자리란 왕관이나 칭호로써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약점을 잡아 그들의 복종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넌 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시민 라: 위대한 임금님이었습니다.

박물관장: 그러면 그것을 믿어라.

시민 라: 그러나 진실을 고백하자면 혹시 공룡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품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장: 공룡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시민 라: 네.

박물관장: 그럼 그것을 믿어라.

시민 가: 폐하, 부디 둘 중에 하나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박물관장: [알] 속엔 무엇이 들었는지 정말 알고 싶은가?

시민 라: 그렇습니다.

박물관장: (상자 속에서 칼을 꺼내 시민 라의 앞에 던져 주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름을 하자. 그 칼은 내가 전왕을 겨누었던 칼이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찔러 보라. 나는 결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임금이다. 너희들에게 이를 데 없는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칼을 쥐고 나를 찌르라. 자, 어서 찔러. 네가 나를 찌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찌르게 된다.

시민 라: (칼을 쥐고 박물관장에게 다가간다. 그의 가슴에 칼을 대었다가 힘없이 툭 떨어뜨린다.) 당신을 죽이면 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들의 고향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A] 박물관장: (떨어진 칼을 주워 들고) 이번엔 내가 너를 찌를 차례다.

시민 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과의 노름에서 생명을 걸어 잃었지 않았던가요?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나 진실을 들려주십시오.

박물관장: (칼을 가슴에 대고 귀에 나직하게 속삭인다.) ㉢ 그럼 네게만 말해 주마. 그 알은 한 줌의 석회로써 만든 것이다. 지금 그것은 상자 속에 부서져 있다. (돌칼로 시민 라를 찌른다.) 이젠 알았는가? 너의 괴로워하던 양심은 구제되었는가? 이 바보 같은 놈의 시체를 치워라. 한 줌의 석회에 자기 목숨을 판 놈이다.

시민들: 한 줌의 석회라뇨?

박물관장: 시청 광장으로 끌고 가서 장례식이나 잘 치러 주어라. 이왕이면 그의 소원이었던 석회로 둥그런 알을 만들어 그 속에 담아 묻어라.

시민들: 네, 폐하! (시체의 다리를 잡는다.)

박물관장: 너희들, 나와 내기를 할까? 그 시체를 시청 광장까지 끌고 가는데 이십오 분 걸릴 것 같다. 너희들은?

시민들: (㉣ 서로 상의하더니) 저희들은 십팔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장: 그래? ㉤ (상자 속에서 시계를 꺼내든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재기로 한다.

시민들: (시체를 끌고 달려 나간다.)

박물관장: 미친놈들이 죽은 개 끌고 가듯 하는군.

(시민 나, 등장)

시민 나: 폐하!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박물관장: 왜? (귀찮다는 듯이...) 머?

시민 나: 숲속에서 알을 하나 주웠는데, 알이 엄청 커요. 아무래도 위대한 왕이 나올 알 같습니다.

박물관장: 뭐야? 그럴 리가 없어.

시민 나: 진짜라구요. 색깔이 요상해요.

박물관장: 으...악...!

43. 윗글을 연극으로 공연하려고 할 때, ㉠~㉤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박물관장’은 시민을 억누르는 권력자의 모습에 어울리는 커다란 왕관을 쓰게 해야겠어.
- ② ㉡: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명을 켜다 켜다 반복해야겠어.
- ③ ㉢: ‘시민 라’에게만 들리듯이 말하는 상황이지만 관객에게 대사가 전달될 수 있게 성량을 조절하도록 해야겠어.
- ④ ㉣: 애도하는 시민들의 심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울먹이며 연기하도록 해야겠어.
- ⑤ ㉤: 시민들이 긴장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계 돌아가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어야겠어.

44. [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박물관장’이 주술로 만든 것이다.
- ② ‘시민 라’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 ‘박물관장’의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 ④ 시민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사물이다.
- ⑤ 시민들이 나라를 침입하는 공룡에게 대적하는 수단이다.

45.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 설화에는 금기 모티프와 관련한 내용을 소재로 한 것이 많이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대표적이다.

신라 제48대 경문왕 때 의관을 만드는 복두장(幘頭匠)은 홀로 아는 비밀을 죽음이 두려워 평생 말하지 않다가 죽게 될 때 도림사(道林寺)의 대밭에 들어가 대나무에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 질렀다. 그 후 바람이 불 때면 대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나서 순식간에 그 소문이 도성에 퍼져 나갔다. 임금은 이것을 싫어하여 대나무를 베어 버리고 그곳에 산수유를 심었는데 그 후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길다!”라고 하는 소리로 변했다고 한다.

- ① ‘복두장’은 ‘시민 라’와 달리, 죽는 것을 두려워하였군.
- ② <보기>는 [A]와 달리, 금기시 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군.
- ③ [A]의 ‘진실’과 <보기>의 ‘비밀’은 권력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군.
- ④ ‘시민 라’는 ‘복두장’과는 달리, 진실을 알고 난 직후 죽음을 맞이했군.
- ⑤ <보기>의 ‘임금’은 ‘박물관장’과는 달리, 괴로워하는 ‘복두장’을 구제했군.